

서해안 배연신굿

김 일 경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이수자

바다는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 이들은 바다에 생명을 걸고 고기잡이를 해왔다. 때로는 만선의 기쁨도 누리지만 흉어가 계속될 때는 만선의 꿈을 키우며 바다와 싸우다가 불귀의 객이 되기도 한다. 바다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를 막고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것이 풍어제이다.

풍어제는 이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잔치와 서해를 둘러싸고 전개된 역사의 아픔을 함께 풀어내는 의식이 담겨 있다. 풍어제는 깊은 밤에 마을에서 뽑은 한두 사람의 제관에 의해 지내는 유교식 제의와는 달리 기예가 뛰어난 사제무에 의해 하루 또는 이삼일씩 온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춤과 노래를 즐기며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1. 서해안 배연신굿의 유래



서해안 일대에서 행해지는 배연신굿은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의 임경업장군이 전쟁에 실패한 후 병사들을 거느리고 연평도로 건너갈 때 병사들이 굶주리고 지쳐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임장군은 무도의 땀샘이라는 곳에서 병사들에게 산에 올라가 뽕루스나무(일종의 가시나무)를 꺾어 오게 한 후 썰물 때 물골에다 세워놓고 임장군이 손수 축문을 외우니 조기떼가 여기에 하얗게

걸려 들었다. 그리하여 임장군은 병사들에게 이 조기를 배불리 먹이고서 땀샘을 무사히 건너 가게 되었다 한다. 그 이후로 사공과 통사들은 임경업장군을 숭배하여 서해안 일대의 각 섬마다 당을 짓고 임장군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 후 모든 배들이 이같이 입장군을 신으로 섬기게 됨으로 해서, 이때부터 배연신굿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백령도 앞바다의 장산곶에서 바닷물이 명석마루같이 빙빙돌아 소용돌이 치는 곳이라서 배들이 이 곳을 지나 갈 때는 돼지 한 마리씩을 물 속에 넣고 배의 안전을 기원했다고 하는 데, 여기에서부터 배연신굿이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굿날을 정할때는 배임자가 택일해 주는 이를 찾아가서 굿하는 날짜를 정하고 단골 만신을 찾아가 날짜를 알려주고 굿하기를 청한다. 이때 배가 연신하기 바쁘지 않게 날을 정하고 조금 물때에 맞추어 굿을 한다. 굿하기 이틀 전부터 사공들은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바닷물에 목욕하고 모두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서 잠을 자며 부정할 것을 금기한다.

한편 배임자네 문밖에는 장군기를 달고 그 집 대문과 추녀 양쪽에 송침(소나무가지를 반발 넘게 꺾어다가 집대문고 추녀 양편에 꽂아 부정을 막는 것을 말한다)하고, 집안에서는 등신옷(신복)을 준비한다.

2. 굿의 순서

- | | | |
|--------------|-----------|------------------------|
| ① 신청울림 | ② 당맞이 | ③ 부정풀이 · 부산띄우기 |
| ④ 초부정 · 초감흥굿 | ⑤ 영정물림 | ⑥ 소당제석굿 |
| ⑦ 먼산 장군거리 | ⑧ 대감놀이 | ⑨ 영산대감 · 영산할아밤 · 영산할맘굿 |
| ⑩ 썩거 주는 굿 | ⑪ 다릿발 용신굿 | ⑫ 강변굿 |

3. 굿의 내용

3.1. 신청울림

신청울림은 굿하기 전에 악기를 울려서 주당 잡귀를 쫓아내고 굿청을 정화시키는 굿이다.

신청울림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을 없애는 의미로 부정소지를 한 장 올리는데, 그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당 밖으로 나가며, 나갈 수 없는 사람(환자)은 신청울림이 끝날 때까지 머리 위에 버선을 이고 앉아 있다. 또 집안에 골고루 복이 들라고 장농문이나 광문을 열어놓고, 쌀항아리 방석뚜껑(옛날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짚을 가지고 등근 방석처럼 만들어 항아리 뚜껑으로 사용)도 열어놓고 마당에 주당상(부정상)을 차린다. 주당상에는 굿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담아놓고 조기 한 마리, 술 한잔을 대문쪽을 향하여 마당 한복판에 놓는다. 조, 수수, 입쌀반대기를 지붕 추녀끝, 부뚜막, 장독대, 굴뚝, 화장실, 여물 가마솥 옆, 외양간 소머리 위쪽, 마당 등에 짚을 깔고 놓는다.

만신은 주당상을 들고 그 자리에서 땀똥고 나서 상을 놓고 상에 차린 음식을 대문밖으로 던진 다음 대신칼을 들고 춤을 추며, 칼끼리 마주치다가 칼산(신이 신청울림이 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신칼을 던지는데, 이때 칼끝이 밖으로 향하면 잘되었다고 여기며, 반대로 칼 끝이 안으로 향하면 밖으로 향해질 때까지 계속 축원하며 대신칼을 던진다)을 춘다. 그리고 나서 만신은 다시 굿청으로 들어와 장고 앞에 서서 식구들의 날밥(나이)을 윗사람부터 대며 잦은 만세반이로 ○○살 먹은 ○○(이름)의 주당을 풀어낸다.



3.2. 당맞이

당맞이는 당산의 신을 맞이하여 굿청에 모셔 오는 의식이다.

가맛개, 육섬, 개머리 지역에서는 당맞이를 배굿하기 전에 먼저 하는데, 이때에는 당맞이, 뱃동사들끼리 간단한 고사, 신청울림, 부정풀이 순으로 굿을 한다.

잡이선의 팔동사들 중 한 사람이 음식을 담은 함지를 지게에 지고 맨 앞에 서고, 장군기, 소당기, 봉죽, 서리화, 새납, 껍쇠북, 태징, 만신, 장고잡이, 징잡이, 제금잡이, 뱃동사 순으로 따라 선다.(때에 따라서는 장군기 하나만 들고 당맞이를 나갈 때도 있다.)

3.3. 부정풀이, 부산 띄우기

이 굿은 당맞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고사, 부정풀이를 하는 경우에 부산띄우기만 한다.

부정풀이, 부산띄우기는 배 안의 뜬귀와 부정을 다 실어 태워서 멀리 떠내려 보내어 배와 굿청 등을 정하게 하는 의식이다.

3.4. 초부정·초감홍굿

초부정·초감홍굿은 굿당의 부정을 씻어내어 굿당을 정하게 한 뒤에 제신들을 청배하여 즐겁게 놀려 주고 제단에 좌정시키는 것이다. 만신은 긴노래를 띄우면서 부채와 방울을 두손으로 높이 들고 신을 청해 받는다. 이때 신이 내리지 않으면 긴노래를 계속 띄우면서 신들을 차례로 모신다.

3.5. 영정물림

영정물림은 모든 영정을 대접하고 질병, 근심, 액운을 걷어내는 굿이다.

이 굿은 굿상에 차린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작은 상 위에 놓고 삼색형겉, 삼배, 무명을 작게 잘라 놓고 마루나 굿당인 외양간에서 굿을 하게 된다. 굿상 앞에 서서 잣은만세받이를 하고 소지,쌀 한주발,술 한잔을 놓은후 긴노래를 띄우면서 종이를 접어 부정소지를 올린뒤 팔도명산 소지를 올린다. 부정소지란 부정을 없애기 위하여 종이를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몸수가 나쁘면 소지가 검고 또 밝게 잘타면 길하다고 한다.

3.6. 소당제석굿

소당제석굿은 육류나 생선 등 비린 것을 일체 금하고 몸을 정하게 한 뒤 각 소당제석(산신제석, 용궁제석, 사해용왕제석 등)을 청하여 대접하고 놀면서 배와 사공들을 잘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한편, 배연신굿에서는 복을 주는 신인 소당제석을 특별히 모신다.

3.7. 먼산 장군거리

먼산 장군거리는 멀고 가까운 여러 지역의 명산에 깃들여 있는 장군들을 청하여 용맹과 위용을 칭송하는 굿이다.

돼지머리, 삶지 않은 돼지다리, 삶은 돼지다리, 그리고 조기를 상에 받쳐 전체 굿상 앞에 놓는다.

3.8. 대감놀이

대감놀이는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다.

만신은 긴노래를 띄우고 굿장단에 느리게 춤을 추며 대감기로 여러 가지 몸짓을 한다. 이를테면 귀도 후벼 보고 눈도 씻어 보고 “오랫만에 장고소리가 나니 어디 보자.”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고 어깨를 들먹이고 “피리, 기강쟁이, 옥저소리, 기발이 펄떡 듣기도 좋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좋다고 거드럭거리며 거드름을 피운다. 그리고 나서 만신은 춤을 추며 돼지 잡아 놓은 곳을 왔다갔다 하다가 기주에게 다가가 공수를 준다.

3.9. 영산대감·영산할아밤·영산할맘굿

이 곳은 나랏님공주를 모시고 다니던 배옥선관인 영산들을 잘 놀게 하여 신을 즐겁게 해주는 곳이다.

만신은 머릿수건과 탈을 쓰고 방울과 깃대를 들고 영산할맘으로 꾸민다. 영자(배에서 오래 일을 하여 나이 많이 먹은 사람)는 활옷을 입고 광대는 한 쪽 머리에 붙이고 영산할아밤으로 꾸며 영산할맘이 만세 받이를 할때 영산할아밤은 뒤어서 춤을추며 같이 뒷소리를 받고 긴노래를 띄운다. 연극적 요소가 강한 곳이다.



3.10. 송거 주는 곳

송거 주는 곳은 배임자와 사공들에게 복(고기)을 주고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다.

만신이 송거타령 선소리를 섞인다. 사공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무명을 잡은 이들은 노래에 맞추어 마치 배가 바다에서 떠다니 듯이 무명을 출렁 거리게 흔든다. 만신이 흔들거리는 무명(배) 위의 떡(물고기, 복)을 배임자와 사공들에게 차례로 주면 그들은 등허리 옷자락을 벌려 짐을 지는듯이, 무겁게 많이 받은 듯이 복떡을 받아가지고(여주네가 받을 경우에는 치마폭을 크게 벌려 받아간다)

3.11. 다릿발 용신굿

다릿발 용신굿은 배 안에 뜬 용신들, 여러 잡신들을 배 바깥으로 내물리어 복이 배 안으로 실리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배와 물을 연결하는 다릿발에서 사고로 죽어 간 용신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며, 다릿발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다.

이 곳은 보통 다릿발 아래서나 다릿발 바로 위에서 하기도 하는데, 용신 시루와 배에 차렸던 제물 조금씩 그리고 용신밥을 놓아 굿상을 차린다. 뱃동사들 중에 용신으로 간 이가 있으면 각자 집에서 밥, 조기, 술, 나물, 손푸념을 해와 따로 작은 상을 차려놓는다. 그리고 뱃동사들은 짚으로 주절비처럼 틀어서 영자가 아니면 화장이 쓰고 음식 짚꾸러미를 준비한 뒤 새끼줄로 어깨끈을 만들어 등에 진다.



3.12. 강변굿

강변굿은 바다에 떠도는 수비와 영산들을 풀어먹이고, 띠배에 모든 액을 실어 바다로 띄워 보내어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에서 죽어간 용신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곳이다.

주변 사람들은 배와 갯가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띠배를 전송하는데, 그 사이에 무당은 뱃동사 식구 중에 물에서 죽은 이가 있는 집에서 준비한 상에 가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천도를 기원해 준다.

서해안배연신굿은 세습무에 의해 사제되는 아래쪽의 마을굿과는 달리 신이 내린 강신무(降神巫)에 의해 사제되며, 화려한 복식과 춤이 다채롭고, 사제무 점신현상의 신비함과 익살스러움의 연행이 복합된 곳이다.

배연신 또는 연신이라는 이름의 뱃굿은 웅진·연평도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서해안 아래쪽의 고창과 영광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한때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연신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일반적인 뱃굿도 여러 해안지방에서 있어 왔던 곳이다.

현재는 황해도 연백 출신의 김금화(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유자)에 의해 인천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다. ▲

